

월간 내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라면
모두 국채와 함께
점핑 점핑!

웹드라마 <좋은 소>에 출연한
배우 남현우·진아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획 인터뷰는
18p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복 일터

Intro
Life
Goes On

희망 일터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맛납니다!

일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요즘 중소기업
이렇게 근무한다고요?



표지이야기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라면
모두 국채와 함께
점핑 점핑!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55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Life Goes On

행복 일터

- 04 Intro
Life Goes On
- 08 Topic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 12 System
HOW TO 국.채.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 18 People
충범이 예영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이름에 도전하세요!

희망 일터

- 26 슬기로운 한국판뉴딜 생활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맛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상담사례
상주고용복지센터 김수연 상담사-내담자 이천호 씨
- 30 굿&굿 오피스
무지개 너머
'저 세상 직원복지'를 실현하다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 34 인생 2막
팬찮아요
은퇴는 누구나 처음이니까요
-은퇴전문 작가 김관열 씨
- 38 청년꿈터
요즘 대세, 영상 제작 교육듣고
마케터 취업까지 한 번에 성공했죠!
-송경숙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 42 내일잇수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 46 고용노동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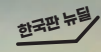
힐링 일터

- 58 미디어 속 노동읽기
요즘 중소기업
이렇게 근무한다고요?
- 62 JOB툰
마른 취업 시장에 대비·
비오는 날 기분 좋게 일하는 방법
- 64 직장탐구생활
재택근무도 노하우가 필요해!
집에서도 일 잘하는 방법
- 66 고민타파
원치 않는 실업 상황...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 70 저녁이 있는 삶
테마가 있는 책방 산책
어디까지 가봤니?
- 72 직장인 건강상식
유산소 운동 vs 근력 운동
- 74 주말에 뭐 할래?
8월 영화·책·전시 추천
- 80 내일 백일장
월간내일 독자들의 사연
- 82 애독자 퀴즈

Life Goes On

✱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도,
실업의 상황 속에서도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335,096명이
신청(7.1.기준)하였으며 264,070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죠. 나아가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급
자격도 확대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도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직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또 유형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 위기 상황에 내몰린 분들의 일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월간 내일> 8월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마스코트 '이룸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리우는데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죠.
아직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모르신다고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받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탄생했나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탄생했죠!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WHY?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은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평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요.

구직활동 이행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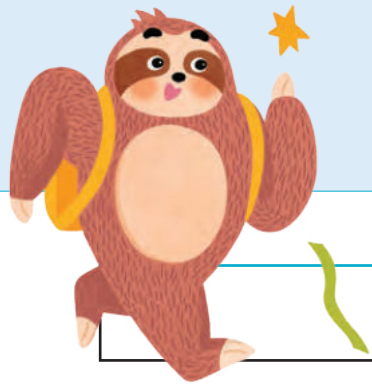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의무를 부여한 후,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합니다.





WHO?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사람 여기여기 모여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궁금하신가요? 취업을 원하는 청년·장기실업자·경력단절여성·저소득
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신청
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이라면 요건심사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분들은 선발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청년 구직자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 유형	II 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요건 무관)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 지원자	7	위기청소년 등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 한부모	12	구직단념청년	13	영세 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5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I 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II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이 궁금한가요?

I 유형과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
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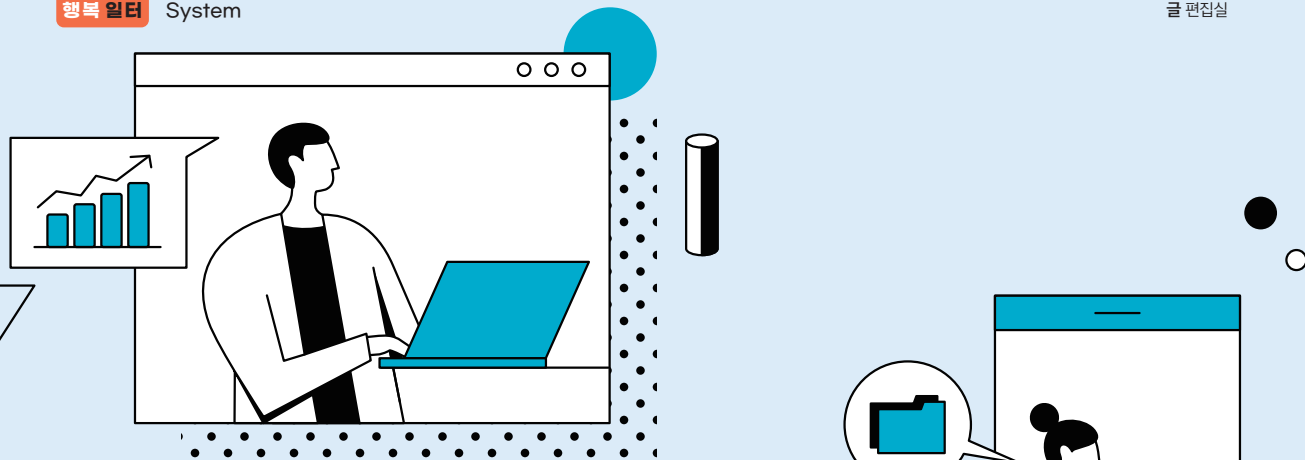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
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구분		Ⅰ 유형			Ⅱ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등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 대상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청년 4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무관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소 득 지 원	구직 촉진수당	○		X			
		취업 활동비용	X		○			

W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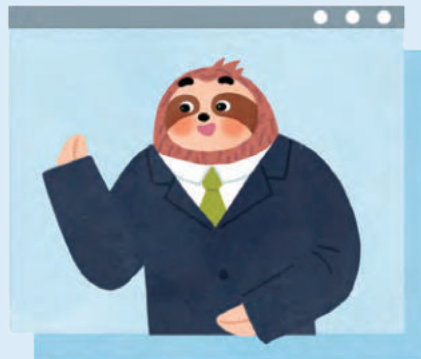




HOW TO

국.취.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수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아래 프로세스를 따라 차근차근 신청부터 수급에 이르기까지
늘봄이와 함께 따라가볼까요?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p>(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p> <p>(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p>

맞춤형 취업지원을 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kua/index.do>)를 접속하면 취업유형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취업과 관련된 지식, 업무 숙련 경험,
구직에 대한 태도 및 활동,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에 관한 기초적인 준비
정도를 간편하게 진단해주소. 또한,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통합지원형**,
직업훈련형, **일경험지원형**, **취업알선형**, **해외취업형**, **창업창직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취업유형이 궁금한 구직자라면 사이트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종합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해요!

● 통합지원형 ●

대상

장기구직, 공무원시험 준비, 최종학교 중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취업목표 및 의지가 부족하여
취업 목표설정부터 취업 알선까지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

연계 가능 서비스

대학생 연합기숙사, 취업사관학교, 아산시 청년내일카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항공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제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행복공공기숙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직무 맞춤형 훈련을 받고싶어요!

● 직업훈련형 ●

대상

전공과 다른 분야 취업 희망, 전직, 증력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애로를 가지며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청년층

연계 가능 서비스

맞춤특기병제, 전문기술과정 국비지원, 일학습병행(재직자),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디딤돌, 국비지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 과정), 기술기능 훈련지원프로그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요!

● 일경험지원형 ●

대상

직무경험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으로, 취업을 위해 희망 직무에 대한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층

연계 기능 서비스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취업 연계를 도와주세요!

● 취업알선형 ●

대상

취업 목표설정, 직무경험, 어학능력 등 취업에 필요한 요건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로,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곧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층

연계 기능 서비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글로벌 채용시장으로 가고 싶어요!

● 해외취업형 ●

대상

해외 장기 체류 경험 등을 통해 해외생활에 대한 거부감 및 두려움이 낮고, 언어의 애로가 없으며, 해외취업 및 해외 인턴십을 희망하는 청년층

연계 기능 서비스

취업애로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 해외인턴 사업, K-Move,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창업을 하고 싶어요!

● 창업창직형 ●

대상

창업 및 창작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취업보다 창업 및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층

연계 기능 서비스

창직인턴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창업인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범이 예영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이름'에 도전하세요!

웹드라마 <중.중.소> 배우 남현우 X 진아진 인터뷰



현실 직장생활을 적나라하게 반영한 하이퍼 리얼리즘이란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웹드라마 <중.중.소>. 특히 그중에서도 독특한 캐릭터와 매력으로 인기를 끈 배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충범 역의 배우 남현우와 이예영 역의 배우 진아진인데요. 두 배우가 드라마를 통해 경험한 회사 생활은 어땠을까요? 또 그들이 함께 고용센터에 찾아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봅시다.



Q_ <중.중.소> 시즌 3가 최근 끝났어요. 충범이와 예영이 역할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일을 보내고 있나요?

현우: 월간내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남현우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중.중.소>를 사랑해주시고 또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면과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진: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영 역을 맡았던 배우 진아진입니다. 저도 이전보다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중.중.소> 시즌 준비도 하고요.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Q_ <중.중.소>가 중소기업 회사 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극으로 경험한 회사 생활 어땠나요?

아진: 역할로만 보면 제가 사실 좀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캐릭터였잖아요(웃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알미운 구석도 있었고요. 비록 예영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함께 근무하는 역할의 배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짝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오랜 기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가장으로서 버티는 이과장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느꼈는데요. 많은 분이 댓글을 통해서 실제로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서 공감하시더라고요. 모두들 열심히 버티면서 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 맞아요. 저도 극으로나마 6개월의 회사 생활을 경험했는데 잠시 경험한 회사 생활이지만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기간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겼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총범이 캐릭터가 조금씩 성장하는 역할이다 보니 힘든 회사 생활이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 버티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를 그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Q_ 두 캐릭터가 굉장히 달랐지만, 한편으로는 각각 어떤 측면에서 청년층의 모습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아진: 기본적으로는 저의 어떤 모습을 극대화해서 표현했던 점이 있고요. 또 예영이가 입사 면접을 보러오는 날부터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는 독특한 캐릭터였는데, 그런 점은 실제 브이로그 콘텐츠를 보면서 많이 참조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회사에서도 다소 자기표현을 감추지 않는 모습을 연기했죠.

현우: 저는 실제로 총범이 연기를 할 때 모티브가 되었던 분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분의 행동과 말투를 많이 참조했지만, 현장에서 감독님과 다른 배우들의 조언 덕분에 총범이란 캐릭터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제 본 성격이 드러난 영상을 보면서 실제 모습이 총범이와 많이

다르다고들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총범이와 제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총범이가 다소 소심한 캐릭터다 보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점이 저와 비슷하구요. 우직하게 노력하고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닮고 싶기도 해요.

Q_ 오늘 두 분이 고용센터에 가서 취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심층 상담 경험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아진: 저는 고용센터를 처음 방문해봤는데, 시설도 잘 안내되어 있고, 초기 상담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진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상담자 분이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상담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느꼈는데요.
많은 분이 댓글을 통해서
실제로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서
공감하시더라고요. 모두들 열심히
버티면서 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Q_ 직업선호도 검사도 해보셨다고요?

현우: 네 저는 직업선호도검사 S형이라는 검사를 진행했어요. 6가지로 분류되는 홀랜드 성격검사 유형 중에서 저는 예술형이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상담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배우가 천직이라고 하셔서 '아 역시 이 길이 맞구나'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Q_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현우: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좀 촘촘하게 구직자들을 돕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상세한 진로상담부터 구직활동비용도 주고, 취업 알선도 해주시고,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수당까지 주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분이 제도를 알고 혜택과 지원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중.중.소>의 정승네트워크 식구들이 실존한다면 실제 전후로 이 정책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진: 저는 취업준비 중인 동생 생각이 났어요. 올해 부터 시행됐다고 하셨는데, 상담 선생님 설명을 들어 보니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동생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께 받은 팸플릿과 유형별 지원 내용 서류를 챙겼어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_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취업준비생분들과 실직자 여러분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아진: 제가 누구 위로할 사람은 아니지만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비가 내리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곧 땅이 굳을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버티고 힘차게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현우: 제가 극 중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사실이 표나 그래프같은 객관적인 수치로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견디고 계신 시간이 충분히 가치 있고 다음의 점프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함께 힘내서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사실이 표나 그래프로 같은 객관적인 수치로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견디고 계신 시간이 충분히 가치 있고 다음의 점프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함께 힘내서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영옥 서울서부고용센터 상담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 우수상 수상자



Q. 두 분 배우들과 진로상담을 진행해주셨어요. 코로나19 시국이지만 여전히 상담센터로 찾아오는 분도 많다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초기 상담지와 성격 검사지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두 분 모두 진로 설정에 대한 열의가 높고 상담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서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쉽지 않은 시국이라 온라인 상담이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이나 모바일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분들이 고용센터를 많이 찾으세요. 저희같은 상담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이유죠.

Q.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상담사님은 지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사례였나요?

거둬진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와 그에 따른 이혼 등으로 노숙 생활을 하며 건강이 악화된 60대 남자 분의 사례였어요. 참 마음이 아팠죠. 그 분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면서 직업선호도·가치관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참여자 본인의 성향이나 가치와 희망 직무인 경비직무 간 낮은 일치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구직 전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관 경비신임교육 이수하시도록 했죠. 또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재기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우울증 극복이 시급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EAP상담을 연계하고 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상담과 의료·생계급여 안내해드렸습니다. 또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을 통해 구직의 발판도 마련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Q. 그 외에도 많은 내담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계신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담자의 사례가 있으신가요?

군 제대 후 낮은 학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는 청년에게 법률 사무원 양성과정 훈련을 독려해서 법률 사무원으로 취업하게 한 사례가 기업에 납니다. 또 IMF 때 해고와 파산을 겪은 뒤 20년간 취업을 포기하며 살던 분을 만나 직업 훈련을 도운 기억이 있는데요. 전기 기능사·전기 산업기사·전기 기사·소방전기·소방기계 등 5개 자격증을 취득해서 결국 건물 관리자로 취업하셨어요. 이처럼 실패감과 좌절을 겪은 분들을 만나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어서 상담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과 삶의 목표를 잃은 분들에게 인생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전력이 부족한 분, 전공은 있으나 적성이나 흥미가 맞지 않아 전직을 원하시는 분, 자녀 양육으로 일을 떠났던 경력 단절 주부,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또는 전업을 고민하는 분 등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중.중.소> 총범이, 예영이의
고용센터 탐방기 브이로그를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댓글과 선물 받으실 주소를 남겨주신 분들에게
늘봄이 굿즈를 전달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탐방기 #브이로그 #중중소 #총범예영



Hopeful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 26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맛납니다!
- 30 무지개 너머
'저 세상 직원복지'를 실현하다
- 34 괜찮아요
은퇴는 누구나 처음이니까요
- 38 요즘 대세, 영상 제작 교육듣고
마케터 취업까지 한 번에 성공했죠!
- 42 정책기자단이 전하는
흥미진진 고용노동 정책 이야기
- 46 고용노동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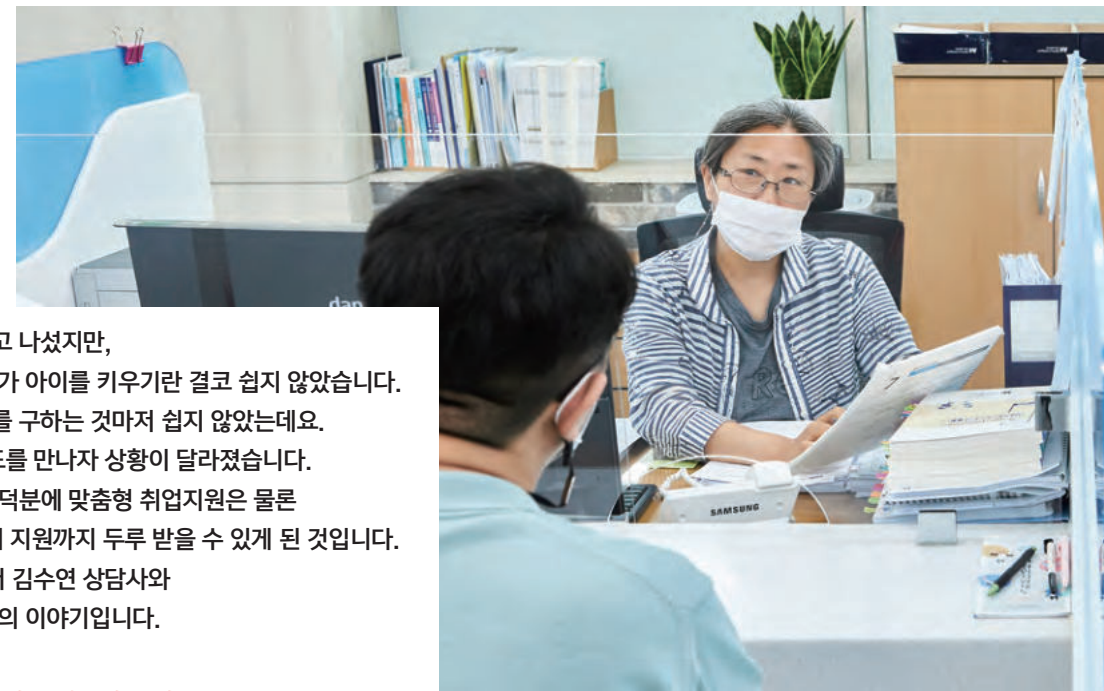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맛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상담사례
상주고용복지센터 김수연 상담사-내담자 이천호 씨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손녀를 키우겠다고 나섰지만,
예순 살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일자리를 구하는 것마저 쉽지 않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만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열정적인 상담사 덕분에 맞춤형 취업지원은 물론
생활 및 양육 연계 지원까지 두루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주고용복지센터 김수연 상담사와
내담자 이천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맞잡은 따뜻한 손길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천호 씨의 2020년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10년 이상 자
자체 공공근로와 한국도로공사 제설업무로 생계를 꾸려 왔지
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채용이 힘들어졌습니다. 간간히 해 오던
일용직 일자리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취를 감췄죠.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보니 빚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설상가
상 아이를 양육할 상황이 되지 않는 딸이 손녀를 아버지에게 말
렸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섰지만, 마
땅한 일자리가 없으니 애가 탔습니다. 이천호 씨가 올해 초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문을 두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초기상담에서 이러한 사연을 듣게 된 상주고용복지센터 김수
연 상담사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직업선호도검사와 내담
자의 삶의 궤적을 고려해 경비직, 청소직 등 몸을 쓰는 업무 위
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해
드렸죠. 그런데 2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일주일 전 구직활동
내용 점검을 위해 전화를 하니,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손녀를 양육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

채용이 결정되자마자 전화를 드리니,
일하면서도 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면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간의 고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생활 전반까지
돌보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상담사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손녀와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에 미처 구직활동까지 신경 쓰지 못한 것입니다.
“구직활동에 전념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었기에 생활 및 양육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상주고용복지센터의 복지지원팀의 상담을 주선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결정되어서,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연락해 추가 상담 일정을 잡았죠. 이후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담자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구직활동도 한층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테니까요.”

구직자를 지켜 준 ‘복지 안전망’

#맞춤형_연계_복지지원

생활 및 양육지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수연 상담사와 이천호 씨는 구직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원활한 양육을 위해 손녀가 어린이집에 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때마침 시청 환경과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할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데 모인 동네의 재활용 자원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업무였습니다. 열흘 뒤인 5월 21일, 합격자 명단에 이천호 씨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채용이 결정되자마자 전화를 드리니, 일하면서도 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면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간의 고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물론 이와는 별개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꾸준히 신경 썼습니다. 내담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손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김수연 상담사는 곧바로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연락해

취업 소식을 전하고, 손녀 양육을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달했습니다. 덕분에 손녀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아 생활자금 사정도 나아졌습니다. 덕분에 이천호 씨는 5월 24일부터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터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선물이 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을_꿈꾸게_하는_원동력

오전 8시, 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이천호 씨가 자전거를 타고 근무지로 향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4인 1조로 오후 4시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걱정할 정도로 주어진 일에 몰입하죠. 재활용 자원을 엄격하게 분류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피어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너무 밥을 안 먹어서 상담사님께 데리고 갔어요. 상담사님이 말하면 밥을 먹을 것 같았거든요. 예상대로 상담사님은 인자한 말투로 조곤조곤 아이를 설득했고, 아이는 밥을 잘 먹어야 키가 큰다는 상담사님 말씀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뒤로 가끔씩 양육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담사님께 조언을 구하는데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생활 전반까지 돌보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상담사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손녀와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웃음).”

김수연 상담사도 이번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고용 및 복지 담당자들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움직이면 사각지대의 위기가구에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재확인했는데요. 특히 가끔씩 이천호 씨와 손녀를 마주할 때마다 이들의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어 뿌듯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수연 상담사는 앞으로 찾아올 내담자를 더욱 열정적으로 맞이할 힘을 얻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상담사와 내담자 모두에게 커다란 기쁨과 일상의 활력을 선물한 셈입니다.



늘봄이's Advice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하시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모두 도모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 심층 상담과 취업선호도검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취업지원
- 훈련·일 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원
- 맞춤형 복지 연계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지원(Ⅰ유형)
-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6개월 지원(Ⅱ유형)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사업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24p를 참조하세요.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무지개 너머 ‘저 세상 직원복지’를 실현하다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이 회사, 구성원들의 행복에 집요할 만큼 진심입니다. ‘어느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중심의 PR회사’를 꿈꾸는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은 직원 모두가 PR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씁니다. 무지개 너머 행복을 꿈꾸고 또 기어코 실현해내는 이들의 노력 덕분에 PR업계 문화가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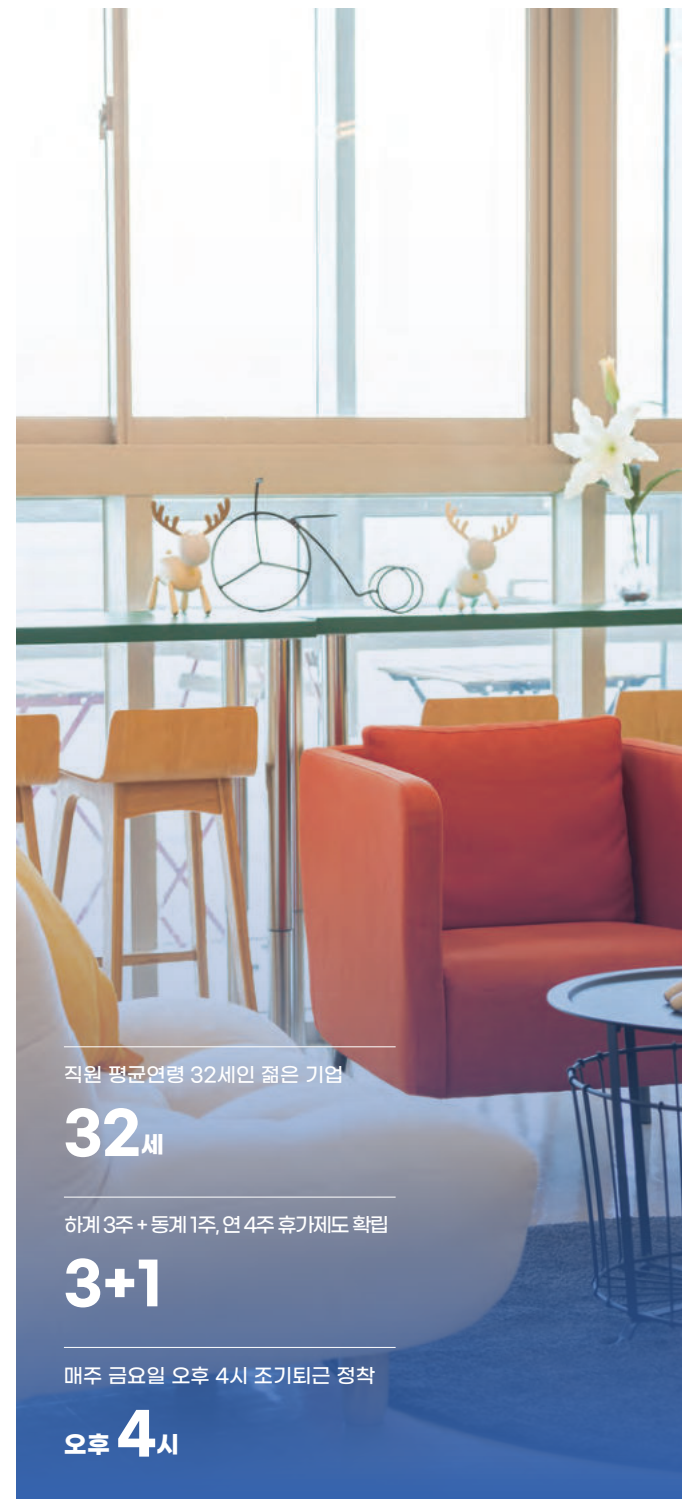
홍보대행사에서 워라벨은 먼 나라 얘기?

댓츠 노노!

자고로 광고홍보 업계라 하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만큼이나 고강도 스트레스, 잦은 야근과 철야를 버틸 체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통합니다.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은 다릅니다. 이곳에선 만성피로와 디스크에 시달리는 철의 노동자 대신, 설레는 얼굴로 오후 4시에 퇴근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자주 상대하는 홍보대행 업무는 스트레스가 꽤 많은 직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이지요.” 유영석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재충전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개인의 성장동력은 물론 장기근속을 유도해 회사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대한민국 PR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광고홍보대행사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은 올해로 17년 된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문회사로, 공공 PR과 공공캠페인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이 현실이



직원 평균연령 32세인 젊은 기업

32세

하계 3주 + 동계 1주, 연 4주 휴가제도 확립

3+1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조기퇴근 정착

오후 4시

되는 회사, 창의적인 사고와 능력을 발휘하는 회사,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안정적인 회사'라는 목표 아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을 이끄는 게 이들의 미션 이죠. 이를 위해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 간 소통과 여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쉬어야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 전무후무했던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통해 직원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에 이어 여가친화기업(2019), 근무혁신우수기업(2019),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2020), 고용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협약기업(2020), 그리고 2년 연속(2019·2020)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복리후생제도는 끊임없는 보완과 혁신을 통해 지금도 진화 중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크리에이티브 지수 UP

지난 6월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평등 공헌 포상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PR 업계 최초로 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실천한 기업으로 인정받은 건데요.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은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로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6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유연근무제 적용 확대, 출산휴가 시 임금 10일을 추가 부여하는 등 여성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를 위한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0일까지 확대했습니다. 모성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출산 시 2년간 매달 10만 원의 육아수당 지원은 물론, '그루터기'라는 사내 어린이



놀이공간 및 수유공간을 구성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Over the rainbow'라는 구성원 휴게 공간을 오픈해 지친 일상 속에서 위로가 되는 아지트까지 확보했습니다.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은 직원들의 여가 확보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워니 워니 해도 가장 반응이 좋은 건 '집중휴가제'입니다. 하계 3주 & 동계 1주 연속휴가를 사용해 충분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완벽한 휴가를 위한 사전작업도 꼼꼼히 이루어집니다. "휴가 중 직장 동료나 클라이언트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연초에 미리 전 직원의 집중휴가기간을 조사해 공유하고 철저히 인수인계해둡니다.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직원들도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길 바라며 서로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 김지연 대리는 "집중휴가 기간이 종료되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조사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실제 휴가기간 동안 회사와 고객으로부터 얼마나 연락을 받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했는지, 업무 연락의 불가피성 판단, 그리고 해당 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점을 수렴해 차년도 운영방향을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가가 주어져도 이를 즐길 체력이 없다면 무용지물! 직원들의 건강도 살뜰히 챙기는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은 헬스비 지원은 물론 독감 무료접종, 출장 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과 심리상담도 진행합니다.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는 법인카드를 3만 원어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비롯해 2시간 조기퇴근이나 출근시간 연장 쿠폰을 발급하는 깨알 같은 배려에 직원들의 애사심도 절로 샘솟습니다.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한 끝없는 고민

지친 구성원들에게서는 창의적 발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창조와 혁신도 요원할 수밖에 없죠. 구성원의 아이디어가 막힘없이 발휘되고 기꺼이 채택되는 기업문화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충분 조건인데요. 경직된 관행에서 탈피해 자율성을 기반으로 뛰어난 성과를 낸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안에서 가장 생동감 있게 꿈틀대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증명하는 개개인의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은 사내에서도 직원들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율학습조'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구성원들이 그룹을 만들어 강의 기획, 운영, 관리까지 진행하는 학습활동으로, 취미 찾기·영상 제작·글쓰기·이모티콘 제작·직무 분석 등 매년 5~6개의 자율학습조가 운영됩니다. 무엇보다 근무시간 내에 활동이 이루어져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주체성, 자발성, 참여성이 존중되는 회사로 커가는

밀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들이 수없이 왔다가 사라지지만, 몇 세기가 지나도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뢰'입니다. 또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치열한 업무 틈틈이 유영석 대표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홍보대행 직종은 소위 스펙을 뛰어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일을 처리하는 도전 정신, 미래에 대한 통찰,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강한 열정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성적 휴·야근이 없어지고 워라벨을 유지해나가면서 구성원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조직은 성과를 창출하는 Win-Win 구조가 구축됐습니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임직원들의 화두는 자연스럽게 더 넓고 높은 세상으로 향합니다. 호시탐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사람들의 새로운 욕구를 건드리는 이들은 "지속적인 소통으로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새 역사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살뜰히 챙기며,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구성원들이 꾸는 꿈은 이토록 환합니다.



괜찮아요 은퇴는 누구나 처음이니깐요

은퇴전문 작가
김관열 씨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한 그에게도 은퇴는 쉽지 않았습다. 하지만 김관열 씨는 퇴직 후 마주한 회사 밖의 삶을 정면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전문작가, 강사, 1인 유튜버, 작사가, 취업 멘토, 음악기획사 슈퍼바이저 등 6개의 직업을 갖고 오히려 더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누구나 은퇴는 처음이니까’ 은퇴도 공부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봅시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35년의 공기업 생활을 마치고

지난 35년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근무한 김관열 씨는 직장생활 당시 대외협력 및 홍보 분야에서 일하며 다양한 사람과 상황과 마주하는 일을 이어왔습니다. 35년 직장생활의 절반은 외자 계약과 관련된 일을 하며 캐나다 등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를 경험했고, 나머지 절반은 대외협력 업무를 통해 홍보 업무를 맡았던 것이죠. 퇴임 당시 마지막 보직이 1직급인 대외협력처장이었는데 김관열 씨는 당시를 이야기하며 “업무 특성상 언론은 물론 각종 단체나 수많은 지역 주민들을 상대해야 했다”며 “회사 내부에서도 수 천 명이 되는 큰 규모의 직원을 보유한 조직의 행정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에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내내 그의 진짜 속마음은 ‘어서 빨리 퇴직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넌지시 말했죠. “업무가 힘들다 보니 일을 하면서 시력도, 치아도 안 좋아지는 등 몸 상태가 많이 약해졌어요. 어서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죠. 현대 공교롭게도 제 나이 때부터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이 된 거예요. 현 보직에서 물러나 임금피크제 기간을 보내며 자문역과 특별 과제 등을 수행하게 됐죠. 출퇴근은 똑같이 하는데 업무량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은퇴 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틈틈이 책을 읽으면서 은퇴 후 삶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퇴직 예정자들은 퇴임일이 가까워 올수록 점차 은퇴를 맞는 것을 두렵게 느끼곤 합니다. 그 이유는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김관열 씨는 ‘준비가 안 되어서 은퇴가 두렵다면,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은퇴가 기다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자신만의, 그리고 자신다운 은퇴 준비를 하나 둘 세워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2막, 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죠?

“정년퇴직 2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는 평범한 일반 퇴직자들이 따를 만한 은퇴준비 가이드라인이 없구나’라는 생각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은퇴 및 퇴직과 관련된 서적이 많지만, 그 책들 속에서도, 심지어 회사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은퇴전문프로그램, 은퇴전문가나 퇴직선배들에게도 답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은퇴와 타인의 은퇴를 위해, 김관열 씨는 은퇴준비실전 지침서인 『은준인(隱準人)』이라는 저서를 쓰고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책을 통해 김관열 씨는 공무원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은퇴준비 방법을 전달하는 전문강사(ART코치국내1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사 활동은 그를 안전 분야, 민방위 분야, 평생교육 대학 등 여러 분야로 확장했고 어느덧 그는 6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되었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출연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상반기에만 예정돼 있던 70여 개의

강의가 모두 취소됐고 하반기 강의 일정도 거의 없다시피 됐던 것이죠.

“마음이 좌절되기도 했지만 언제까지 낙담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는 마음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에 도전했어요. 사람들과 직접 만날 수 없다면 1인 미디어를 통해 만나면 되겠다고 생각을 전환했고 약 4개월간의 독학으로 채널을 개설해 현재는 구독자 약 6천명을 보유한 1인 크리에이터가 됐어요. 1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보유하고 있죠. 저의 유튜브 도전이 성공할 수 있던 데는 코로나라는 위기가 그 중심에 있던 셈이예요.”

김관열 씨는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코로나가 19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서 주관한 ‘신중년 인생 3모작’ 사례 공모전에 지원해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써서 상을 받고, 인터뷰까지 하게 됐으니 코로나19는 또 다른 선물을 나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100세 시대보다 가까운 말, ‘트리플(Triple) 30’

도전은 언제나 손해 보지 않는 장사라고 강조하는 그는 자신이 은퇴 후 지금의 삶을 이어올 수 있던 데는 계속된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삶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로드맵은 ‘100세 시대’라는 거대한 단어가 아닌 인생을 3번의 30년으로 나눈 ‘트리플(triple) 30’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인생 2단계인 경제활동기를 위해 1단계 독립준비기에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현대 우리에게서 소중한 마지막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2단계의 30년을 위해 1단계에서 준비하듯, 3단계의 30년을 위해 2단계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준비를 위해서는 ‘자기핵심 브랜드(Self-core Brand)’를 만들어 제2의 직업으로 연결시켜야 해요. 저는 이 평범한 방법을 통해 퇴직 2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은퇴전문작가, 다양한 분야의 강사, 1인 유튜버, 전문작사가, 1급 직무전문면접관 및 취업 멘토, 음악기획사

저는 이 평범한 방법을 통해 퇴직 2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은퇴전문작가, 다양한 분야의 강사, 1인 유튜버, 전문작사가, 1급 직무전문면접관 및 취업 멘토, 음악기획사 슈퍼바이저 등 6개의 직업을 갖게 됐어요.



꿈을 건드리세요. 건드리지 않으면
꿈일 뿐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도와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입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예요.”

슈퍼바이저 등 6개의 직업을 갖게 됐어요.”

김관열 씨는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정 어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즉 ‘은준인’이 되지 않으면 ‘은둔인(隱遁人)’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선택의 몫은 각자에게 있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자고 말יי쑤.

“꿈을 건드리세요. 건드리지 않으면 꿈일 뿐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도와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입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예요.”

그는 오늘도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키우는 데 하루를 쪼개어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삶을 이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쑤. 인생의 남은 30년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김관열 씨는 오늘도 다양한 전문가로서 하루를 열고 또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송경숙 씨

요즘 대세,
영상 제작 교육듣고
마케터 취업까지
한 번에 성공했죠!



2020년 여름, 졸업한 송경숙 씨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왕복 3시간여 거리의 신촌으로 매일 발걸음 한 그의 사연은 무엇이였을까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해 취업에 성공한
송경숙 씨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한여름 왕복 세 시간, 뜨거운 여정을 시작하다

어디서나 적극적인 에너지로 빛내는 존재감을 과시하는 송경숙 씨. 그런 그에게도 취업은 또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방송콘텐츠 전공을 졸업하고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가 되고 싶었지만, 졸업장을 손에 쥔 때까지 실제로 동영상 제작해본 실무 경험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영상 제작 경험에 목말라 하던 그에게 뜻밖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땅한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채로 학교에서 조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후배가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를 알려줬죠. 그 후배가 컴퓨터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제도였죠. 25년을 살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바로 실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송경숙 씨가 사는 곳은 경기도 화성, 그는 집에서 왕복 3시간 거리 서울 신촌에 위치한 컴퓨터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서울로 학원을 정한 것은 취업을 미리 대비하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콘텐츠 직종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거리 출퇴근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학원도 서울에 있는 곳으로 골랐죠. 대중교통 편을 이용해서 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꿈에 다가서는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개강을 맞이한 그에게는 함께 수강하는 동기들도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강인원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지만, 각자 다양한 사연과 목표를 가지고 모였죠.

“저처럼 졸업 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오는 동기도 있었지만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을 목표로 오신 40~50대분들도 계셨어요. 나이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모두 영상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배움의 열망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마음이 잘 통했죠.”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확산세는 점차 강해졌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이 전환되었고 이전보다 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변화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 5시간씩 성실히 수강하면서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하루 5시간씩 꼬박꼬박 수업을 듣고 프로그램을 만지다 보니 낯선 영상 제작 프로그램이 서서히 손에 익기 시작했어요. 작업 속도도 처음에는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나중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었죠.”

포트폴리오 작업으로 취업까지 한 번에

그렇게 영상 제작의 매력에 푹 빠질 무렵. 어느새 두 계절이 바뀌어 2020년 말. 송경숙 씨는 특유의 열정과



실력을 인정받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종강 즈음해서 학원에서 수료식을 했어요. 각자의 포트폴리오 작업물을 공개하고 수료증을 받는 자리였죠. 저는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작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학원에서 배운 어도비의 애프터이펙트라는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는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간 몰두해서 첫 작업 영상을 제작했어요. 학원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몰입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큰 자산이었죠.”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학원을 수료한 그는 교육 이력을 토대로 교육기업의 영상 제작 프리랜서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최근 광고대행업을 하는 스타트업의 정규직 마케터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마케터 취업 배경에는 영상 제작 실무능력과 포트폴리오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빛나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송경숙 씨. 그에게는 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돌아보면 저에게 2020년은 다음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중물 같은 시간이었다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까지 휴학도 한 번 하지 않고 심 없이 달려던 저였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한템포 쉬면서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배워보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죠. 덕분에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원하는 회사와 직무로 바로 입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회사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스타트업이라서 더 애정이가요.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달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멋진 마케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취업자's 꿀팁>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영상 제작 분야 취업 꿀팁

영상 제작 분야의 교육은 최근 상당히 많아요. 찾아보면 접근성이 쉬운 강좌가 많이 열려있으니, 적극적인 자세로 공고를 찾아본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영상 제작 분야는 다양한 진로로 연결될 수 있고 채용의 기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시니 믿고 따라 가본다면, 원하는 기업의 직무로 취직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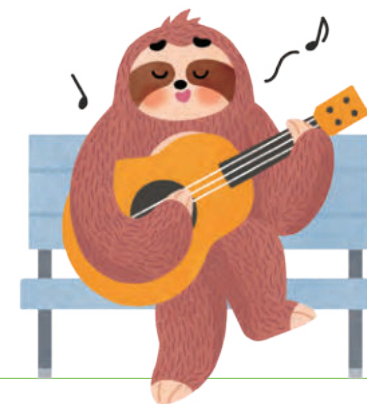
리투아니아의 노동 정책 I

- 코로나19 지원 정책 편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노동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대학교와 로메리스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COVID-19 위기의 결과에 대한 사회 정책 대응: 실업과 빈곤 분석, 국제적인 경험과 리투아니아에 대한 권고”(Social policy responses to th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crisis: unemployment and poverty analysis,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recommendations for Lithuania)를 주제로

코로나19에 의한 국민의 노동실태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표본은 18살부터 74살까지의 리투아니아인이며, 2020년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2%가 임금감소를 겪었으며, 23%는 보너스 금액이 줄어들, 11%는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함, 12%는 월급 지급이 지연됨, 10%는 무급휴가, 19%는 근로시간 단축, 12%는 담당할 일이 줄어들, 25%는 초과근무를 겪었습니다.



더 많은 정책기자단의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를
통해 확인하세요!

회사보다는 재택근무를,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을

업무 문화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택근무가 증가한 점입니다. 2019년 2분기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비율이 전체 노동인구 중 3.2%였지만 2020년도에는 45%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각종 소매 서비스 제공 및 케이터링 시스템도 원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간제 형태의 고용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유연하게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기존 직장을 쉬거나 잃으면서 임시직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비슷한 사업인 ‘Bolt Food’, ‘Wolt Food’의 배달종사자들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Bolt 배달원으로 신청했으나 실패한 인원이 5,0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리투아니아 국민들을 위한 정책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민들을 돕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1) 실업자를 위한 혜택

코로나로 인해 실업하게 된 사람들은 실업급여 외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실업수당을 받는 자는 42유로,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자는 200유로를 지원받습니다. 실업자가 일자리를 신청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직업훈련 비용을 제공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5만 6천유로, 자격 및 역량 향상을 위해 최대 28만 유로까지 지원합니다.

2)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노인·장애인·과부·고아는 2020년 8월 200유로의 혜택을 받았습니

다. 또한, 기업이 이들을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가구원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250유로를 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100유로의 아동수당을 지원받으며 장애아동 및 대가족의 아동도 포함됩니다.

3)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새로운 사업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도 실시합니다. 이를 Local Employment Initiatives라고 부르며, 1개 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18만 8천 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정책으로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가족돌봄비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https://socmin.lrv.lt/en/news/approved-aid-package-after-quarantine-1-4-million-lithuanians-will-benefit>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20

*1유로= 한화 1,359원(2021년 7월 27일 기준)

리투아니아의 노동 정책 II

- 휴가 정책 편



더 많은 정책기자단의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를
통해 확인하세요!

‘번아웃’. 일에 집중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지며 나쁜 생각을 하거나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계속 일만 하고 산다면 점점 지치고 의욕이 떨어지겠죠? 이럴 때 필요한 건 휴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리투아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주5일 근무할 경우 연간 20일의 휴무가, 주6일 근무할 경우 24일의 휴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리투아니아에는 어떤 휴가 제도가 있을까요?

일단 휴가 중에서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병가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휴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 휴가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도중 배움의 끈을 더 늘리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5일간의 교육 휴가가 있습니다. 5년 이상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의 경우 직업과 관련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10일 휴가가 가능합니다.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휴가도 있습니다. 과학적 노력 및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 12개월간 휴가를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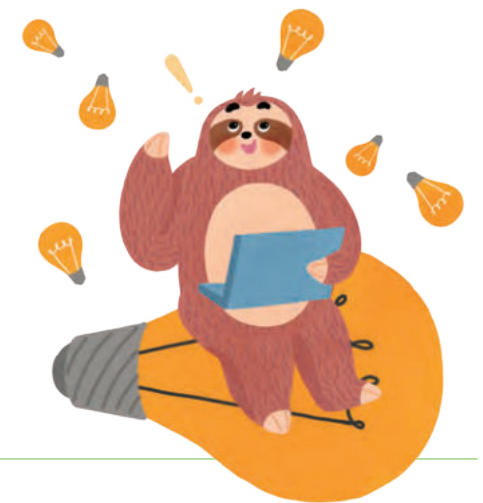
한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휴가도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이거나 만 14세 미만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기본 휴가보다 더 많은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연간 25일의 휴가를, 주6일 근무하는 경우 3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키우거나 12세 이하 자녀 2명을 키우는 근로자는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12세 이하 자녀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근로자는 추가로 2회 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및 출산 휴직도 존재합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회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출산 즉시 14일의 출산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30일의 휴가를 더 얻을 수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3개월이 되기

전까지 혹은 둘째, 셋째가 태어날 경우 생후 6개월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근로형태를 가진 근로자들을 위한 휴가제도도 존재합니다. 교육 직원, 연구자, 전문 예술인, 의료 전문가, 약국 전문가, 조종사나 선원 어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직원 등 정서적 긴장감이나 직업적 위험이 따르는 직업을 가진 근로자들은 좀 더 많은 휴가일수를 갖습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41일 휴가를, 주6일 근무자는 최대 50일의 휴가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의 휴가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발견하기도 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리투아니아만의 특색이 있는 휴가제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만큼 중요한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 <https://tinyurl.com/438jkyyx>

MOEL News

1

청년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8일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구직 청년 8명과 함께 「청년과 함께 풀어나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구직활동 중인 청년의 어려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는 문유진 청년단체 대표가 진행을 맡고, 청년들이 먼저 화두를 던지면 장관이 답변하는 등 보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은 기업들의 수시채용 확대에 따른 어려움, 효과적인 청년지원사업 홍보방안, 지원사업의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과 의견을 잘 들어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진



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일 경험, 훈련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인책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2만 명 확대했으며, 미래유망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기업에 19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인재육성사업을 1.5만 명 규모로 실시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에 2만 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에 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 사업주단체와 동반 관계를 구축하여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는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채용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청년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튼튼한 조력자 같은 부모의 모습으로 청년 여러분의 고용문제를 챙기겠다”라고 하며, “오늘과 같이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은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입니다.

- ▶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또 해당 직종의 종사자로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局)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 불과하던 조직이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재정투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늘어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도 대비합니다. 본부 산재예방지원과(신설)는 중대재해 원인을 심층분석하고 공개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신설)와 지방관서 건설산재



지도과(13개, 신설)는 건설업체 본사 안전네트워크 운영과 건설업 밀착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신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위반 사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7개과, 4개과 증설)는 현장의 특별감독 및 광역감독 총괄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간사위원 등 국회의원들과 노사대표(한국노총 정윤모 부위원장, 경총 이동근 부회장), 재해예방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단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4

주52시간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2일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첨단재생의료 의약품 제조업체((주)메디노, 대표이사 주경민)를 방문하여, 노·사 간담회를 하고 작업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방문한 첨단재생의료 의약품 제조업체 (주)메디노는 생애주기별 뇌질환 극복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업장으로 관리직, 연구개발직, 생산직군의 총 3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평시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으나, 생산직, 연구개발직의 경우 노동집약도가 높은 만큼, 신약 개발을 위한 비밀상 연구 및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7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1:1 맞춤 컨설팅에 참여했으며, 근로시간 운영상황 진단을 통해 선택근로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받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에 도착한 뒤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를 격려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노·사 간담회를 하고 기업의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우리나라(1,957시간)는 손꼽히는 장시간 근로 국가 중 하나로, OECD 평균(1,626시간)과 비교해도 연간 근로시간이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2018년 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탄력·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 제도를 보완하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인건비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과로 사회 탈출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도 요청했습니다.

5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장의 참여 신청 기간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1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백신접종 등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3차 추경사업'으로 한시 도입되어 신청 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③고용을 유지하고, ④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사업주는 ⑤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애초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1월 1일까지로 연장되나, 올해 말까지 지원되는 한시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021년 11월 1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과·근로개선지도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 → 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지난해 1월 31일부터 ‘인명보호·안전 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주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돌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156건, 올해 5월 말 기준 2,282건입니다.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4.6. 시행)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탄력근로제(① 2주 이내, ② 3개월 이내, ③ 3~6개월 단위 등), ▲선택근로제(1개월, 연구개발 분야는 3개월) 및 업종에 따라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의 경우에는 ‘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주 최대 60시간)도 가능합니다.

7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총 850여 개의 팀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투입됐으며, 총 3,500개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①작업발판, ②안전난간, ③개구부 덮개, ④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추락 고위험 작업인 ⑤지붕작업, ⑥달비계 작업 관련하여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점검했고, 이와 함께 ⑦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개 현장 중 1,211개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며, 110개소는 패트를 점검으로 연계하여 한 번 더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확인·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패트를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는 140개 건설현장은 총 623건(현장당 평균 4.5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습니다.

안전난간(279건), 작업발판(135건)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개인보호구(121건) 착용 불량의 경우도 다수 지적됐습니다. 향후 패트를 점검, 감독 시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점검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위주가 아니라 자율점검표 배부, 위험요인에 대한 시정 요구 중심의 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있어서 건설현장 스스로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간의 상시적인 점검·감독에서 벗어나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제 점검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2/3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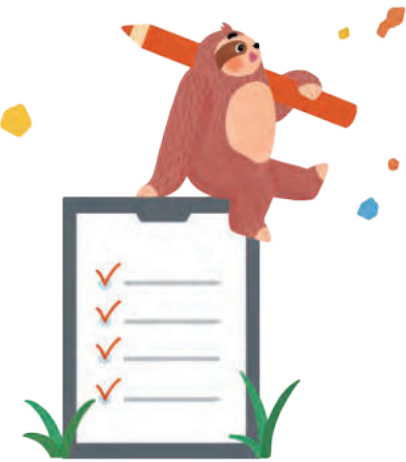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홈스토리생활의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 훈련과정을 시작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7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총 94,020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정된 6개 기관 10개 과정의 훈련 분야는 인공지능(클라우드웍스), 청소(홈스토리생활, (주)생활연구소), 보육(짜깁악어주식회사, (주)맘편한세상), 자동차운전운송(렉스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경기지역본부)이며, '데이터 라벨링 입문·중급(클라우드웍스)', '생활청소 표준((주)생활연구소)',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주)맘편한세상)',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렉스아카데미)' 등의 훈련과정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의 핵심은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및 안전·근로권익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플랫폼 종사자에게 특화된 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으며, 훈련생이 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생의 소득증가 또는 처우개선 성과를 훈련기관이 직접 증빙하도록 하여 훈련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형태·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워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최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21.6.30.)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어, 플랫폼 종사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희망자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과정」에 필요한 훈련비를 계좌 한도 내에서 1회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로는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처음 도입되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권익을 보호, 직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소득증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Healing



인생 2막, 볼을 커다

58 요즘 중소기업 이렇게 근무한다고요?

62 마른 취업 시장에 단비·비오는 날 기분 좋게 일하는 방법

64 재택근무도 노하우가 필요해! 집에서 일 잘하는 방법

66 원치 않는 실업 상황...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70 테마가 있는 책방 산책 어디까지 가봤니?

72 유산소 운동 vs 근력 운동

74 8월 영화·책·전시 추천

80 내일 백일장





요즘 중소기업 이렇게 근무한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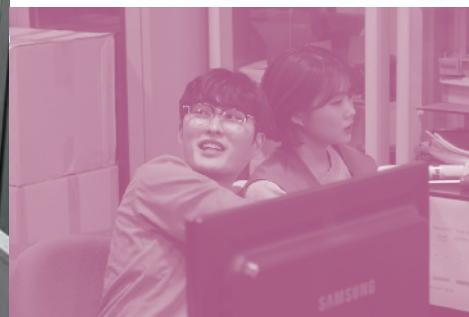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웹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바로 이과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중.중.소>라는 웹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대중의 호평을 받으며 OTT 제작사에 판권을 판매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요?

또 드라마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공감을 이끌어낸 걸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웰컴 투 정승네트워크! 혼란의 면접 현장



오늘도 면접에서 낙방한 취업준비생 충범. 연이은 낙방의 탈락의 고배를 마시던 그에게도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면접 본 중소기업 정승네트워크에서 입사하라는 합격 연락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 회사 어딘가 이상합니다. 면접을 보러왔는데 아무도 면접 일정을 모르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급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면접을 보죠. 그 자리에서 인쇄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읽는 대표는 지원자 충범의 능력보다 자신의 과거 대기업 출신 이력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일쑤네요. 게다가 취미가 노래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현장에서 노래를 시키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물으니 '그런 건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섭섭해합니다. 어쩐지 찌찌한 이 회사에서 과연 충범 씨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 여기서 잠깐!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아직도 안 하셨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https://www.moel.go.kr/mainpop2.do>)

무역회사에서 IT 사업을? 바람 잘 날 없는 정승네트워크



한편 정승네트워크에는 성실한 가장이자 5년째 회사를 지키는 든든한 실무자 이과장, 일도 감정표현도 확실한 이미나 대리, 대표의 조카인 정이사가 있습니다. 무역 업무를 기반으로 한 회사이지만 정필돈 대표는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혀 다른 IT영역의 경쟁입찰에 들어가죠. 결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떠난 정승네트워크는 급하게 신규 개발자를 뽑습니다. 하지만 새로 온 개발자인 이예영 사원도 어쩐지 심상치 않네요. 면접 첫날부터 카메라를 들고 와서 면접 브이로그를 찍고, 업무 중에도, 워크샵에서도 브이로그 카메라를 끄지 않고 촬영합니다. 게다가 해외 파견 업무를 갔다가 복귀한 회사의 에이스 백진상 차장은 돌아오자마자 총범이를 쉴새없이 다그치고 무시하곤 합니다. 게다가 과거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죠. 바람 잘 날 없는 정승네트워크의 일상. 앞으로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 여기서 잠깐!

직장 내 성희롱,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시행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주장자에 대해서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

이제부터 JPD소프트라고요? 개발자 모시기에 나선 무역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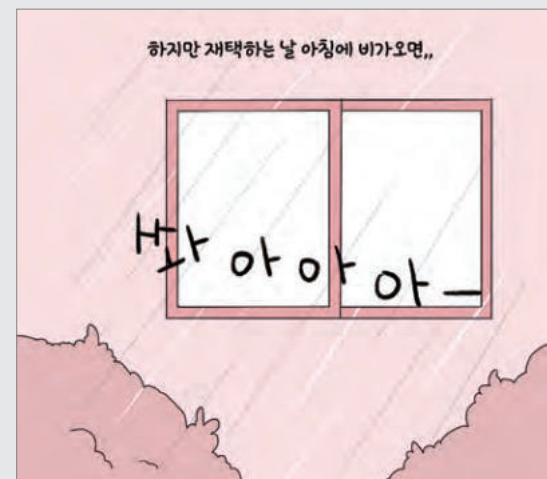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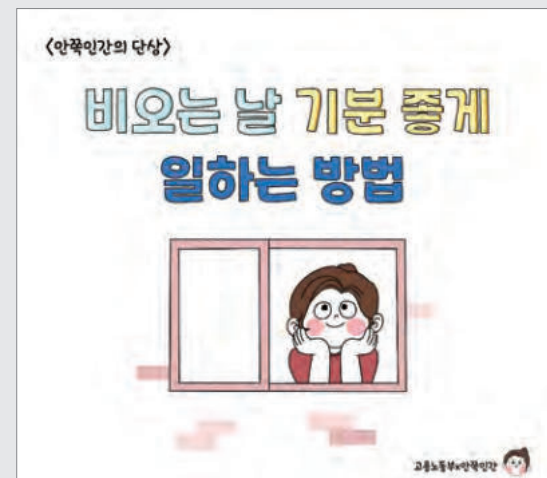
IT 관련 사업을 떠나기 위해서 정승네트워크가 아닌 JPD소프트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고 부족한 개발 인력을 보강한 정대표. 무역회사에서 개발회사로 조금씩 체질을 바꾸면서 기존에 무역업무를 중점적으로 근무하던 인력은 시름이 깊어지고, 연봉협상에 불만을 가진 백진상 차장은 결국 회사를 뛰쳐나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요 무역거래처 고객을 백차장에서 뺀 정승네트워크는 하루가 다르게 사세가 기울어 가죠. 그 와중에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입찰 시 조건 중 하나였던 박람회 참여까지 걸으려는 순조롭게 진행되죠. 박람회 참여를 위해서 기용한 인력인 지훈은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뛰어난 개발 실력과 정치력으로 한순간 대표의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제 무역회사에서 IT 회사로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정승네트워크. 그 속에서 흔들리는 직원들의 모습. 과연 정승네트워크의 직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주인공 총범은 이 회사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 여기서 잠깐!

유망 직종,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비전공자도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계 등 유망한 IT 지식을 국비 지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43개 훈련 공급기관을 선정하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본 사업은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삼성 멀티캠퍼스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혁신 IT 훈련기관이 참여해 실제 직무에서 쓰이는 코딩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죠. 코딩을 배워서 취업이나 전직을 꿈꾸는 구직자라면 'K-디지털 트레이닝'의 지원을 받아 개발자로 거듭나보세요!

*참여: HRD-Net(<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재택근무도 노하우가 필요해 집에서도 일 잘하는 방법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장인들의 고민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재택 근무를 하면서도 업무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재택근무 노하우를 알아봅니다.



외출하듯 씻고 환복하세요!

집에서 근무하다 보면 일어난 복장 그대로 씻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몇 번은 그렇게 근무해도 자유로운 해방감에 기분 이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한 복장 탓에 업무 능률이 떨어지죠. 또 최근에는 구글 밋, 줌 등을 이용한 화상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갖춰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할 때에는 실제로 출근하듯 단정한 옷으로 환복하면서 업무 스위치를 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무 스위치를 끄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홈웨어로 환복하는 것도 좋겠죠!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가지세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너무 태만하다고 평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버타임 근무를 하거나 식사 시간을 놓치는 등 적절한 휴식 시간 없이 근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재택근무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한 분량과 속도로 성실히 하되, 재택근무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좋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업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시로 정돈해주세요!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할 때는 일과 생활의 영역이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복장과 자세로 근무하게 될 텐데요. 나에게 편안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해서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한다면 지나치게 나태하고 태만하게 일하게 되어 업무 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집에서 일해도 사무실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해당 공간을 업무공간으로 인식하고 해당 공간에서 벗어났을 때는 일과의 삶으로 돌아왔다고 공간을 통해서 일과 삶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업무 히스토리 공유와

소통은 더 열심히!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가볍게 스몰토크하듯 업무 일상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이라면 업무 공유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업무 협업 툴을 활용해서 히스토리 공유와 소통을 열심히 해야합니다. 동시에 해당 소통의 내용을 서면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늘어난 재택근무를 대비하여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배포했는데요. 재택근무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직장인, 혹은 사업주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참조해보세요!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401213

원치 않는 실업 상황...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잃어서 괴로운 때에도 길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솔루션을 주목해보세요!



Q1 계약 만료로 2년 다닌 직장에서 나와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당장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요.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지원도 해주지 않아서 50만 원 가량 되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만 생계를 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내는 곳의 월세가 50만 원이라서 결국 생활비는 일전에 들어둔 적금을 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장도 안 구해지고 얼마 모아두지 못한 적금마저 곧 바닥을 드러낼 것 같아서 하루하루 애가 탑니다.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꾸역꾸역 살아가는 중이었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곳에는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저도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정·시행하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I 유형(요건심사형)은 ①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2021년 1인 가구 기준 913,916원 이하) 이하이고 ②재산이 3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있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I 유형 중 선발형, II 유형에 따른 지원대상자 요건이 다양하게 있음) 참여자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기간 중 아르바이트로 월 523,2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고려해, 상담에서처럼 매월 아르바이트로 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상담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최대한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담사례에서 이전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2년을 근로하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직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하고 I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한 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프리랜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다가 일이 없어져서 백수가 된 30대 남자입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일이 3.3%를 때는 프리랜서 직종이다 보니 고용보험도 들지 않아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금방 잠잠해질 줄 알고 회복되면 다시 이 일을 하려고 그냥 집에서 몇 개월 쉬고만 있었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향후 몇 년간 이 일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업종을 완전히 전환해서 새출발해보려 하는데요. 최근 여러 구직지원 정책이 활발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였던 저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과거 근로자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	형태	지원 서비스
I 유형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II 유형	선발형 (기존)취업성공패키지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②재산 3억 원 이하(청년은 4억 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하고,

선발형은 ①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취업 경험 무관).

II 유형은 ①저소득층(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②18~34세 청년, ③35~69세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프리랜서가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형에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는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기타 구직활동이나 채용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담사례에서 상담자는 당장의 생계유지 목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전직을 위한 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검색 및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과 특히 본인의 현 상황에 부합하는 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형, 취업·창직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아 새로운 전직 준비 도모를 권장드립니다.





Q3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직장에서 8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했는데요. 회사에 복귀하고 보니 아무런 사전 언급도 없이 직무도 연차도 팀도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장급이었기에 승진을 노리며 실무적인 능력을 쌓아나가야 하는 때였는데 갑자기 바뀐 환경과 직무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동료들의 눈치도 보이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서 몇 달 만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어요. 더불어 집에 있는 아이가 자꾸 눈에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계획하지 않았던 실업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당분간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재취업 준비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뜻밖의 외벌이 상황 때문에 경제 상황도 어렵고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어집니다. 제가 재취업 준비를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다시 커리어를 잇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는 ①직업교육훈련으로 구직자를 위해 새일센터, 광역본

부가 직접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700여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②인턴연계 사업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③경력단절 예방지원을 위해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등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성고용 유지지원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④경력이음으로 20~40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개개인별 특성에 다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상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훈련, 인턴연계, 취업 및 창업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58개 새일센터를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개인별 상황에 따른 상담 등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 당시에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인사경영상의 이유로 한 회사의 퇴사 권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상담자의 퇴사 사유나 과정 등을 설명하고 구직급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도 있으며, 고용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새일센터의 경력단절과 관련된 정책 외에도 구직자 등에 대한 다양한 훈련지원 프로그램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새일센터에 방문하여 상세한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Q4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면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0년간 근무한 직장은 대면서비스가 필수인 호텔 업종이라서 현재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별도의 플랜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직이 어려워서 차라리 전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중인데요. 제 상황에서 국가나 전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폐업한 직장이라 전 직장에서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꼭 재기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고 든든한 환경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를 일정기간 수급받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으며, 한편 동 기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상 해당 요건에 따라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성별, 연령, 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자가 청년, 여성, 장년인자 여부에 따라 전직지원을 포함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사업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장년 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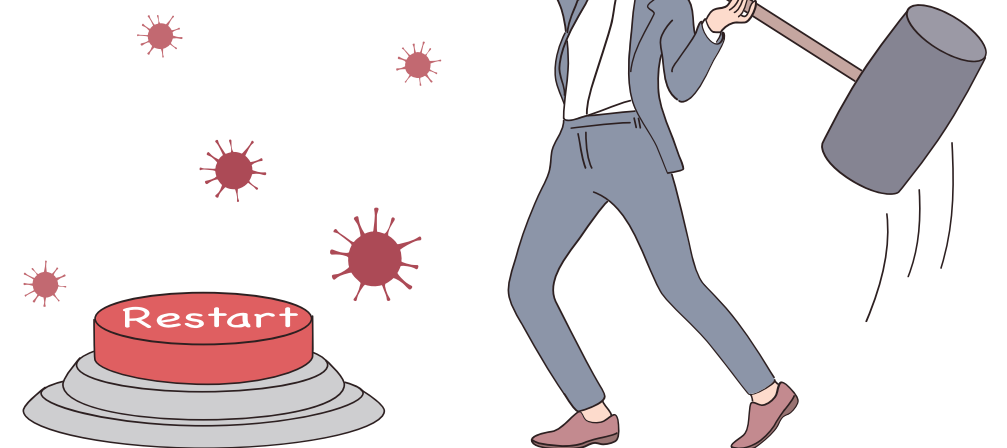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상담과 협의를 통해 개인별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전 경력 등에 따라 정부부처별 지원사업(빅데이터 아카데미,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거나 범부처 신기술 훈련사업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맞춤형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직업경험이 있는 만 35세~49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반구직자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취업준비와 재취업설계(진로 전환 및 적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중전 재직하던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야로 전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자가 여성이나 청년이나 중장년이나에 따라 처한 상황이나 적합 직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철저한 직업훈련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온라인상 워크넷이나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고용센터에서 세밀한 개인별 전직 지원프로그램을 상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책방 산책 어디까지 가봤니?



몇 해 전부터 동네 책방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다양한 개성과 큐레이션의 책방들이 속속 책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데요. 추리소설이나 여행 전문 책방부터 하루를 머물러서 책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북 스테이 책방까지. 다양한 테마가 있는 책방을 통해서 독서 라이프를 풍성하게 해볼까요?

밥 먹으면서 독서를? 복합문화공간

최근에는 맛집과 카페, 서점, 전시 등을 한 공간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인기가 높은 편이죠. 서점에서는 책만 읽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원하는 책을 읽으면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 복합문화공간이 대세입니다. 서울의 '사운즈 한남', '아크앤북', '보안여관', 부산의 'F1963', 의정부 '미술도서관' 등이 있어요.

책과 함께하는 북캉스 북 스테이 책방

여행과 책방을 결합하여 즐기는 북 스테이 책방도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나 펜션과 책방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건데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아베끄', '그건그렇고', 충북 괴산 '숲속작은책방', 세종 '단비책방', 강원 속초 '완벽한날들', 경기 파주 '지지향' 등이 있습니다.

추리소설부터 여행서적까지 취향별 큐레이션 책방

최근 동네책방 붐이 일면서 큐레이션에 신경 쓴 책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독특한 테마를 가진 책방들이 있는데요. 영화를 테마로 큐레이션하고 상영회도 여는 답십리 '영화책방 35mm', 미식, 예술 등의 테마별 여행을 주제로 큐레이션한 연남동 '여행책방 사이에', 추리소설 마니아들의 천국인 신촌의 '미스터리 유니온' 등. 다양한 장르와 취향을 고려한 독특한 테마의 큐레이션 책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감으로 함께 체험 독서 테마 독서 모임

읽기만 하는 독서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 출판사나 책방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필을 쓴 작가와 함께 걸으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걷기 프로그램, 셰프인 저자와 함께 요리하는 모임, 영화 기자 저자와 영화를 보고 리뷰를 쓰는 모임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난다면 이같은 다양한 체험 참여를 통해 오감으로 책을 기억하는 것도 좋겠네요!

유산소 운동 VS 근력 운동

걷고 달리며 생기충전!



어떤 운동인가요?

헬스장에 가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러닝머신 뛰기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죠. 유산소 운동은 많은 양의 산소를 신체에 공급시켜 전신의 지방과 탄수화물을 소모하는 운동입니다.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나요?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 등

주의할 점이 있나요?

- 더운 여름 햇볕아래 지나치게 오래하는 것은 금물!
-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요
- 심장질환이나 당뇨가 있다면 혈압상승과 저혈당에 주의해요

운동의 종류는요?

조깅, 달리기, 자전거타기, 마라톤, 수영,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계단 오르기, 배드민턴, 줄넘기, 스쿼시 등

유산소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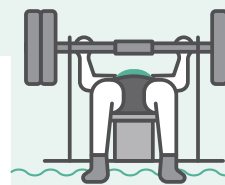
근력 운동



바야흐로 노출의 계절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집콕으로 찐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법도 달라질 텐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특징과 장단점을 구분해보고

건강한 신체를 가꾸어 봅시다!



탄탄 슬림 유지 비결!

어떤 운동인가요?

근력 운동은 신체의 근육을 바탕으로 근력과 근지구력을 발달시키는 운동에 해당합니다. 무산소운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속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의 근육을 강화한다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 유리하며 신체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나요?

관절염, 허리디스크, 골다공증, 요통, 갑상선암, 비만 등

주의할 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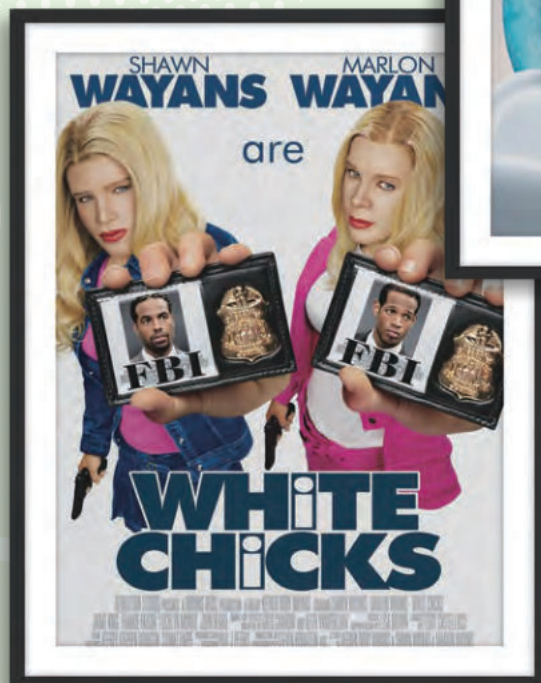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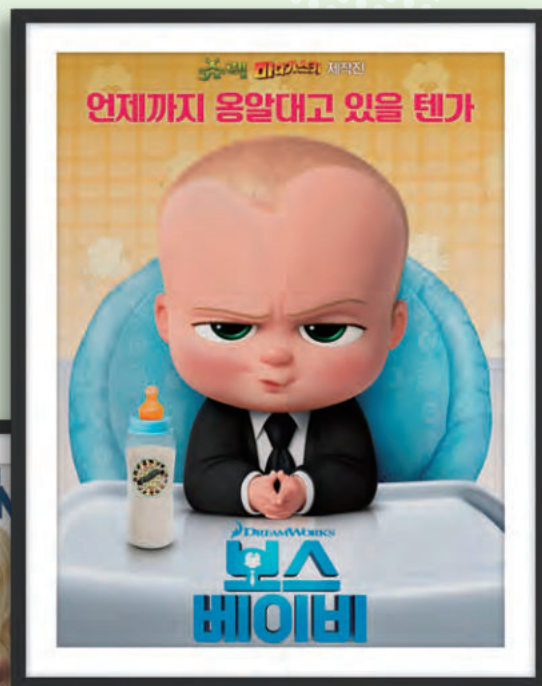
- 근력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서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해요
- 한 번에 무리한 증량을 해서 부상당하지 않도록 해요
- 근육이나 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낄 때는 중지하고 안정을 취해요

운동의 종류는요?

스쿼트·런지·푸시업·레그레이즈·크런치 등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덤벨·바벨 등을 이용한 프리 웨이트, 웨이트 머신을 이용한 고립 운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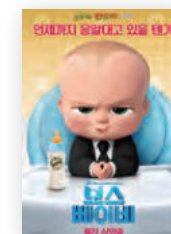
홈캉스, 제대로 즐기자! 무더위를 날려줄 코미디 영화



지금까지 이런 경찰은 없었다

극한 직업

불철주야 현장을 달리지만 어쩐지 엉성한 팀웍으로 언제나 실적이 바닥인 마포경찰서 마약반. 해체 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팀의 만행 고반장은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밀반입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24시간 감시를 위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을 인수해 창업을 하게 되는데, 잠복수사를 위해 간판만 걸어놓으려던 치킨집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수사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마약반은 과연 범죄조직을 소탕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없던 아기가 온다!

보스 베이비

어느 날 굴러들어온 아기 동생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모두 빼앗겨 버린 '팀'은 동생 '보스 베이비'가 영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보스 베이비'는 아기들보다 더 사랑 받는 강아지를 만들어내려는 '퍼피 주식회사'의 계획을 막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형인 팀에게 들키게 되면서 둘은 원하지 않는 공조를 하게 됩니다. 악당들의 끝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팀과 보스베이비는 결국 각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지 영화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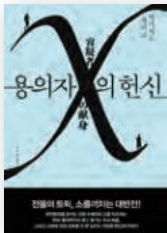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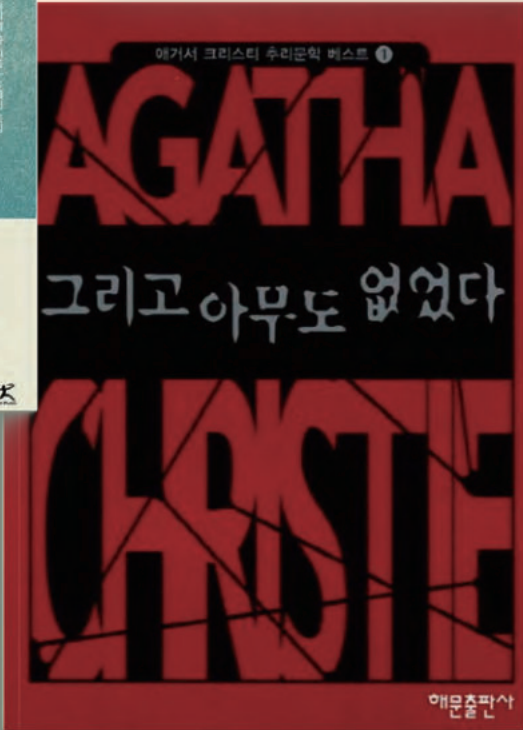


코미디 영화의 전설

화이트 chicks

FBI의 소문난 콤비, 마커스와 케빈은 거물급 마약상을 눈앞에서 놓치며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모두가 꺼려하는 호텔재벌 월슨가 자매의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데 첫날부터 두 자매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대형사고가 나버립니다. 상처난 얼굴로는 자선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그녀들 대신 여장을 하고 파티에 참석하기로 합니다. 과연 둘은 들리지 않고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여름휴가 순삭!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추리소설



천재 수학자의 슬픈 사랑 용의자 X의 헌신

에도가 근처 작은 도시의 연립주택에서 한 모녀가 중년의 남자를 교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해당한 남자는 살인을 저지른 여인의 전 남편으로 이혼한 아내를 괴롭혀 돈을 뜯어 살아가는 파렴치한이었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모녀를 발견한 옆집 남자 이시가미는 모녀를 돕겠다며 나서고, 그녀들을 위한 철벽의 알리바이를 구상하며 완전 범죄를 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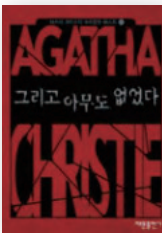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 마나부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면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두 사람의 두뇌 싸움이 펼쳐집니다. 숨막히는 두 천재의 두뇌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봉제인형 살인사건

런던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여섯개의 신체 부위가 꿰매어진 시신이 발견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각 신체 부위는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므로 모든 희생자는 여섯 명

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봉제인형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지만 여섯 명의 희생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등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여섯 명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는 편지가 런던 경찰에게 도착합니다. 사건의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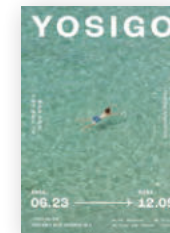


믿고 보는 고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한 갑부가 구매한 작은 섬인 '인디언 섬'에 8명의 남녀가 초대받게 됩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도착한 인디언 섬에는 섬의 주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그들에게 고용된 하인 부부 두 명만이 기다리고 있었

데요. 하인들은 사정이 있어 늦는다는 주인의 메시지를 받고 손님들을 접대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모두가 모인 응접실에 정체 불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열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하나씩 열거합니다. 수수께끼가 깊어져 가는 가운데, 응접실에 놓여 있던 열 개의 인디언 소년 인형들이 사람들의 죽음에 맞춰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과연 범인은 누구며, 왜 이 살인사건은 시작된 걸까요? 애거스 크리스티의 고전명작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그리운 일상을 사진으로 다시 만나다



따뜻한 휴일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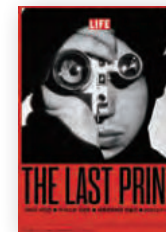
요시고 사진전

스페인 사진가 요시고의 국내 첫 개인전이 개최됩니다. 그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죠. 특유의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의 사진은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2030세대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따뜻한 오렌지 빛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옥빛까지. 요시고 사진전을 통

해서 자연에서 오는 아름다운 색을 자유자재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06.23(수) ~ 2021.12.05(일)



어떤 순간들의 이야기

라이프 사진전

1936년 창간한 <라이프> 매거진은 텔레비전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전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미디어로서 보도사진 분야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과 일상, 패션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섬세하고 솔직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적 작품이 되었죠. <라이프 사진전: 더 라스트 프린트>는 끊임 없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은 사진 100장을 엄선했는데요. 2013년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으로 시작하여, 2017년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기 위하여>에 이어진 삼부작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의 결말은 과연 어떤지 전시를 통해 만나볼까요?

기간: 2021.05.11(화) ~ 2021.08.21(토)



코로나 시대의 여행법

여행갈까요 전시

요즘처럼 여행이 그리운 시기가 있을까요? 편하게 누리던 여행이란 일상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빼앗긴 요즘. '여행갈까요' 전시는 잃어버린 여행의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전시 입장권도 여권과 비행기 티켓 모양으로 독특하게 디자인 되어서 더 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죠.

입구부터 출구까지 하나의 여행을 출발해서 마치는 듯 유기적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들은 주로 휴양지의 시원한 풍광과 유명 관광지의 사진, 그림, 오브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하는 일상이 그리운 분이라면 방문해서 갈증을 해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간: 2021. 03. 05(금) ~ 2021. 09. 26(일)

월간내일 편집실을 찾은 독자 사연

내일 백일장

지난달 월간내일 7월호 테마에 맞춰 나온 '고용보험' 사행시 짓기 이벤트에 대한 독자 참여가 뜨거웠습니다. 독자들이 보내준 사행시 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덕분에
용쓰면서 밥벌이에만 급급했던 삶은
보장된 안전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험난한 고생은 이제 끝!

- 이의령 독자님

고생 많았어?
용기를 내
보험말야
험난한 네 인생에 징검다리가 돼줄 거야

- 박소영 독자님

고맙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셔서
보험이 이렇게 좋습니다
험한 세상을 덕분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 한은봉 독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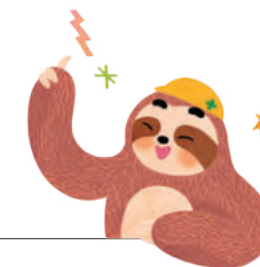
고놈고놈
용하다고 소문났지
보상이 전국민에게 두루두루래!
험난한 세상이지만 고용보험과 점핑!

- 이주안 독자님

고민거리는 해소되었다
용감하게 살자
보듬어 주는 세상이라
험난함도 극복했다

- 고동석 독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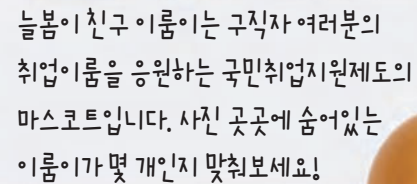
독자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 호에 보내주실 사연은 '재택근무'입니다. 지면을 통해 나의 재택근무 일상에 대한 글과 사진을 자유형식으로 보내주세요. 우편이나 메일 lineq@korea.com로 독자 사연*과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선정된 우수 사연자는 월간내일 놀봄이 굿즈를 드립니다.

* 독자 사연 메일 응모 시 '성함/연락처/주소/우편번호'를 모두 정확히 기입하셔야 선물 배송이 가능합니다.

블록 퀴즈 온 더 블록!



엽서로 제출 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 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7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이의령 / 권성진 / 박소영 / 이민정 / 이은지 / 한은봉 / 김주애 / 홍문영 / 이주안 / 고동석



〈월간 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www.labor21.kr

- ①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 ②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 ③ 모바일 앱진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검색 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